

<회중의 기도>총회를 위한 기도 인 도 자
 특별연주 Bill Douglas의 Hymn 김소연 성도 찬
 송 475장 다 갈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략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구원, 그 이후(4) / “세상 속의 거룩, 분리주의인가 성육신의 참여인가?”
 / 사58:6-9; 빌2:5-8; 록5:27-32 >

✠ 교회 소식 ✠

① 예배 : “기적의 통로가 된 나”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름다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차례입니다.

2026 설교시리즈 “구원 그 이후”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8월 23일	구원, 그 이후 (1) : 도피인가, 변혁인가?	렘 29:4-7	롬 8:19-23	마 5:13-16
8월 30일	구원, 그 이후 (2) : 종교적 열심인가, 일상 속의 공의와 자비인가?	암 5:21-24	약 1:26-27	마 23:23-24
9월 6일	구원, 그 이후 (3) : 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환대인가?	온 4:8-11	엡 2:14-18	마 15:21-28
9월 13일	구원, 그 이후 (4) : 세상 속의 거룩, 분리주의인가 성육신의 참여인가?	사 58:6-9	빌 2:5-8	눅 5:27-32
9월 20일	구원, 그 이후 (5) : 세상을 대하는 방식, 기독교 제국주의인가 섬김의 십자가인가?	숙 4:6-10	고전 1:27-31	막 10:41-45
9월 27일	구원, 그 이후 (6) : 복음과 사회 구조 - 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미 6:6-8	엡 6:10-13	눅 4:18-21
10월 4일	구원, 그 이후 (7)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사 65:17-21	벧후 3:11-13	마 25:34-40

- 6일(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 성찬식 : 13일(주) 1·2부 예배 시

② 모임

- 구역장 모임 : 6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중보기도회 : 8일(화) 오전 10시 30분, 남선교회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10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구역모임 : 13일(주) 2부 예배 후, 구역별 지정장소

③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④ 소허당 전시 : 우순형 & 리오지 작가 팝업전시
 ‘The shape of contemporary seoul’, 11일(금)~20일(주)

⑤ 담임목사 동정 : 몽골연합신학대학 학장 취임식 참석, 6일(주)~8일(화)

⑥ 식당봉사

- 6일(주) : 최영란 전해란 / 이준호 황종환
- 13일(주) : 박현명 이소이 / 윤병우 김두환

⑦ 교우소식

- 점심식사 제공 :故고병걸 집사·권혜순 권사 가정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제778호
 2026. 9. 6.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열다섯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구원, 그 이후(3)“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환대인가?”

에베소서 2:13

세상은 선 곳기로 갈라졌고, 교회마저 교리와 이념의 잣대로 사람을 배척합
 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원수 니느웨에게 흘러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
 니다. 그가 지킨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성전의 담을 찢기신 육체로 허무시
 고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담 밖으로 먼저 걸어 나가,
 원수의 이름을 가진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자격을
 내려놓고 은혜의 넉넉함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담 밖에서
 부스러기를 구하다 건짐받았습니다. 이번 주간, 닫아 두었던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작은 문을 열어 봅시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원수에게 흘러가는 것이 싫어서 화를 냈습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만은 안 된다”고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마음 밑
 에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가나안 여인은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 먼저 다가가 환대할 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려면 무엇
 이 필요하겠습니까?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성령강림절 후 열다섯째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고후5:19)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하고, 마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9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시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드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21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요나 4:8-11(1291) 장 금 녀 권 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에베소서 2:14-18(311) 장 금 녀 권 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목 상 > “Surely Goodness and Mercy” 민 동 림 권 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5:21-28(25) 장 금 녀 권 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현대인가?』 ..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

인도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생명의 부어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회 중: 우리는 믿습니다.